

완도군 상하이 수출사무소 열어 中시장 공략 나선다

JHE 글로벌·산동퓌쿤 유한공사와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 업무협약 5년간 1000만 달러 규모 수출 협약...양링농업박람회 참가 홍보도

완도군이 중국 상하이에 수출사무소를 열어 공격적으로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나선다. 완도군은 지난 20일 완도군청에서 JHE 글로벌·산동퓌쿤투자 유한공사와 '완도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이문걸 JHE 글로벌 대표, 강빈 산동퓌쿤투자 유한공사 회장, 이복선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기업은 완도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중국 수출을 확대하고, 완도군 중국수출사무소 상하이 개소에 협업하기로 했다. 이문걸 JHE 글로벌 대표는 수출사무소 개소를 위한 대(對) 중국 수출위원회에 위촉됐다. 그는 이날부터 오는 2025년 10월까지 2년간 완도군 농수산물 중국 수출 판로 개척에 힘쓰기로 했다.

지난 2016년 설립한 JHE 글로벌은 '2023 중국 양링농업기술박람회'에서 전남관을 운영하는 등 중국에서 전남 농수산물을 홍보해왔다. 완도군은 이날 협약식에서 산동퓌쿤투자 유한공사와 5년간 1000만 달러(135억원) 규모 수출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 기업은 중국 전역에 농수산물 가공식품을 유통하고 있다. 산동퓌쿤투자 유한공사와 JHE 글로벌 등 중국 구매 대표단은 완도군 소재 전북다시마법인과 전북 주식회사, 완도연합농협 미국종합처리장(RPC) 등도 방문했다. 이들은 완도 생산업체로부터 가공 식품 설명을 듣고 맞췄다. 완도군은 지난날 지역 대표 가공식품인 비파 와인, 색깔 보리 커피, 전북 비파 음료 등 4개 품목을

중국에 처음 수출했다. 이 밖에도 색깔 보리 해초면과 유자 곤약 젤리 등도 중국 수출길에 오른다. 완도군은 지난달 중국 최대 농업 박람회인 '2023 중국 양링농업기술박람회'(양링농고회)에서 농산가공품을 홍보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 2018년 완도 쌀 '자연그대로미'에 대해 할랄(이슬람권) 인증을 받은 뒤 말레이시아에 수출했다. 이어 2019년에는 미국 수출길에 올랐고, 2020년에는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아 러시아에 수출했다. 3개국에는 모두 13차례에 걸쳐 117t 수출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중국 시장은 규모가 큰 만큼 이번 업무 협력이 수출길을 넓힐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지속적인 수출로 농어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주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완도군(군수 신우철·오른쪽 여섯번째)이 중국 유통회사들과 농수산물 수출 확대와 상하이 수출사무소 개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신안군이 지난 5월 연 전국 최초 햇빛아동수당 지급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햇빛연금 지급 3년 만에 100억원 돌파

17억→36억→47억 매년 증가 2024년 이후 군민 45% 혜택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사업을 통해 지급하는 햇빛연금이 3년 만에 1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2021년 4월 26일 지역주민들에게 햇빛연금을 첫 지급한 이후 오는 26일로 예정된 연금 지급되면 총 금액이 100억원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지난 2018년 10월 지역주민과 태양광 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태양광 개발이익을 사업자가 모두 갖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나누는 게 조례의 핵심이다. 이 조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으며, 지역주민들의 태양광·풍력 등의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 또 인구 고령화와 지방소멸위기 고위험군에 포함된 신안의 인구가 늘어난 것은 2014년 이후 7년 만에 햇빛연금을 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폭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 9월까지 248명이 순 증가했다. 햇빛연금을 지급한 지역은 안좌, 자라, 지도, 사육도, 임자도 등 다섯 군데로 총 1만775명여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공사 중인 비금면과 공사 예정인 신의면, 증도면을 포함하면 2024년 이후에는 햇빛연금 지급대상자가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햇빛연금 지급액은 2021년 첫 지급 시 17억원에서 2022년 36억원, 2023년 3분기까지 47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햇빛연금 100억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계획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0월 19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햇빛아동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 후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연합회에서 2023년 5월 신안군 내 18세 미만 아이들 2000여 명에게도 1인당 40만원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1인당 8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그 이후에는 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 시행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의 정책을 믿고 협조해 준 주민들 덕분에 지금의 햇빛연금이 실현될 수 있었다"면서 "2030년까지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하면 연간 3000억 원의 주민소득이 생기고, 4만 군민 1인당 연간 600만원의 바랍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군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무안 남악신도시·목포시 택시 사업구역 통합

다음 달부터 무안 남악신도시와 목포지역 택시 사업구역이 통합된다. 무안군은 오는 11월 1일 지역 택시요금·요금 인상 시기에 맞춰 무안 남악신도시(오룡 포함) - 목포시 택시 사업구역(부분) 통합 논란은 전남도청이 남악신도시로 이전한 17년 전부터 지속했다. 목포와 무안지역 택시업계는 분쟁을 거듭했고, 올해 7월에는 택시 사업구역 부분통합 찬반투표를 벌여 '부분 통합'을 결정했다. 8월에는 전남도와 목포시, 무안군, 각 사·군 택

시업계가 협약을 맺어 택시 사업구역을 부분적으로 통합 운영하게 됐다. 11월부터 남악신도시(오룡 포함)와 목포지역에서 택시를 이용할 때, 목포시 택시운임과 요금이 적용된다. 해당 자치단체의 경계를 벗어나면 추가 요금을 물리는 시계 외 요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무안 택시업체는 무안뿐만 아니라 목포 전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다. 목포 택시업체는 남악과 오룡지역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영암군 내년 생활임금 1만500원...올해보다 400원 인상

영암군이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4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500원으로 결정했다. 이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 1만100원 대비 400원(3.96%)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보다 640원(6.49%) 높은 수준이다. 영암군생활임금위원회 생활임금은 다른 사·군의 생활임금 수준, 최저임금 인상률, 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군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의결했다. 내년 생활임금은 기본급, 교통비, 식대, 기타 고

정수당 등 항목에 정가·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 영암군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와 영암군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23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비 또는 군비 지원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영암군은 지난 2022년 4월 생활임금 조례 제정, 2023년 생활임금을 첫 적용했다. /영암=전병헌 기자 jbh@kwangju.co.kr



영광군 신생아 탄생 기념 나무심기 영광군(군수 강중만·맨 오른쪽)이 지난 21일 우산근린공원에서 진행한 '2023년 신생아 탄생 기념 나무심기' 행사에서 올해 1월 새 생명을 얻은 한 가족이 단풍나무를 심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는 새 가족을 만난 96가구가 기념 나무를 심었다. (영광군 제공)

“귀농·귀촌 진도로 오세요”...9번째 귀농인의 집 완공

옛 보건진료소 건물 리모델링 8곳 운영 예비귀농인 10명 생활

진도군이 노후되고 방치된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귀농인의 집으로 탈바꿈시켜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제공한다. 리모델링 대상은 임회면 구 광석보건진료소

단열, 방수, 도색, 화장실과 보일러 공사를 위해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한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거주하며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6~9개월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진도군은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길은 푸르미체협관을 포함, 귀농인의 집 8곳을 완

영중이며 10명의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귀농인의 집 조성을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인 유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영암군민 안전보험 16종→22종 확대 적용

사회재난·개물림·뽕소니 등 추가
영암군은 2018년부터 해마다 가입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이 지난 15일부터 16종에서 22종으로 확대 적용됐다고 23일 밝혔다. 신규 추가된 항목은 ▲감염병 제외 사회재난 사망 2000만원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300만원 ▲1~10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만~2000만원 ▲개 물림 응급실 진료비 1건당 20만원

▲뽕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500만원 ▲뽕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 500만원 한도 등이다. 군민안전보험에는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영암군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른 보험이나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사고 사망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15세 미만자와 심신상실자,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된다.

군민안전보험으로 지난해 교통상해 후유장애, 화재폭발 상해, 농기계 상해 등 14건의 피해를 입은 군민이 1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018년 첫 가입 이후 현재까지 49건에 3억 53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장사항 발생 때 농촌순회보험에 문의한 다음 보험청구서, 주민등록증(초)본 등 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접수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병헌 기자 jbh@

진도 '녹진 관광지' 상권 특화 길 조성한다

행안부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 선정
진도 대표 명소인 '녹진 관광지' 상권이 특색있는 길로 거듭난다. 진도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에 '녹진 관광지 상권 특화 가로(街路) 조성사업'이 로컬디자인 부문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은 지역 특색과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5개 부문에 전국 169개 자치단체가 응모해 진도군을 포함한 27곳이 대상지에 선정됐다. 진도군은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녹진 관광지 상권 특화 가로 조성사업을 벌이기

로 했다. 녹진 관광지는 진도의 대표적인 명소로, 명량대첩축제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하다. 명량대첩의 상징성을 기반으로 가로 형태의 특화된 조형물과 상가 안내판을 곳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녹진 주말장터도 개선한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도비 6억원을 포함해 총 9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이번 로컬디자인 사업 추진으로 우리 군 관문인 녹진 관광지의 관광객 증가와 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색있고 다양한 관광산업으로 꼭 한 번 가고 싶은 진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